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4호 【루게 제25052호】 주제 104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김양건동지, 서홍찬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새로운 의약품 연구 개발하는 것과 함께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일 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신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 노동자, 기술자들을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특히 수액공장을 년산 1,000만개 생산능력을 가진 수액약품생산기지로 확장하고 수직주머니성형으로부터 주입, 접합, 적재, 멸균,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호르몬화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꾼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수액공장이 현대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지난 시기보다 10배에 달하는 여러가지 수액약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했다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종합공장은 우리 나라 제약공업부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공장에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 예방에 필요한 여러가지의 약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설비관리를 잘하고 원료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며 원료의 국산화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해열진통제, 소화제를 비롯한 상비약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효능을 더욱 높이는 것과 함께 모든 의약품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약품생산과 검정, 보관, 취급에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의약품개발과 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자면 현대 과학기술에 정통한 능력있는 인재들로 공장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언제나 잊지 말고 높은 생산성파로 공장에 어려 있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보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약품들을 생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가치수가 많고 효능도 높다고, 공장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데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자체 공장을 돌아보면서 약품포장을 잘하면서도 포장원가를 낮추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는데 약품포장에서 새로운 개선을 가져왔다고, 포장용기들의 위생성,

문화성, 실용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만아니라 약품설명서도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현대적으로 확장된 수액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여러가지 수액약품을 대량생산할수 있게 생산공정들을 꾸려놓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생산공정의 자동화, 호르몬화, 생산환경의 무균화, 무진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한 결과 국제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되는 수액약품을 생산하고있는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성제약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는 해당 부문과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면서 준 과업을 훌륭히 관철하였다고, 공장의 안팎을 흠잡을데가 없이 잘 꾸민것만 보아도 자기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에 깨끗한 정성을 담으려는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를 잘 알수 있다고, 이렇게 꾸려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믿음성이 담보된다고, 이 공장의 모범을 제약공장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는 해당 부문과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면서 준 과업을 훌륭히 관철하였다고, 공장의 안팎을 흠잡을데가 없이 잘 꾸민것만 보아도 자기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에 깨끗한 정성을 담으려는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를 잘 알수 있다고, 이렇게 꾸려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믿음성이 담보된다고, 이 공장의 모범을 제약공장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는 해당 부문과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면서 준 과업을 훌륭히 관철하였다고, 공장의 안팎을 흠잡을데가 없이 잘 꾸민것만 보아도 자기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에 깨끗한 정성을 담으려는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를 잘 알수 있다고, 이렇게 꾸려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믿음성이 담보된다고, 이 공장의 모범을 제약공장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는 해당 부문과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면서 준 과업을 훌륭히 관철하였다고, 공장의 안팎을 흠잡을데가 없이 잘 꾸민것만 보아도 자기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에 깨끗한 정성을 담으려는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를 잘 알수 있다고, 이렇게 꾸려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믿음성이 담보된다고, 이 공장의 모범을 제약공장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장동양위원회를 무성으로 사수하자!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 일흔흔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공으로 빛내이기 위해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련이어 창조되고 로동당시대의

기법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 속에 정성제약종합공장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찾아가는 곳곳마다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을 볼 때마다 혁명하는 보람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며 그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정성제약종합공장에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하날같은 은정을 배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성제약 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귀중한 가르치심과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총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별가리아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를 별가리아 자라바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9월 7일 쏘피아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은 별가리아 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자라바출판사의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별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이따나스 이와노브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에는 자라나는 세 세대

들을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시어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계승발전시키신 주제혁명위업, 선군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고의의 슬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미래를 한없이 귀중히 여기시는 영명하신 김정은각하를 모시였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항상하다.

## 위대한 수령님들의 래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래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대안천선 유리공장 강남군 마정리, 문암리, 풍교리, 평양메기공장에 모시였다. 대안천선 유리공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래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모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애민적인 길을 걸음없이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동강기슭에 현대적인 유리공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완공된 대안천선유리공장을 찾으시어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풍년든 농장별을 찾으시어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만풍년》이 강남군 마정리와 문암리, 풍교리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60(1971)년 3월 마정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토지정리를 하여 농업생산을 높이고 양어와 축산을 잘하기 위한 문제 등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문암리에도 포전길을 걷고있으며 논과 밭에 거름을 많이 내고 알곡 생산을 높이며 마을을 잘 꾸리고 앞날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대안천선유리공장과 강남군 마정리, 문암리, 풍교리, 평양메기공장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래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겠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대안천선유리공장과 강남군 마정리, 문암리, 풍교리, 평양메기공장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래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겠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시커나가는것을 비롯하여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생을 바치시며 주체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기쁨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추추는데 깊이 내뿜어놓은 열정과 애정을 새겨주시였다. 대안천선유리공장과 강남군 마정리, 문암리, 풍교리, 평양메기공장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래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겠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대안천선유리공장과 강남군 마정리, 문암리, 풍교리, 평양메기공장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래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겠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본사기자

##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이여!

### 세계적관도에서 공화국창건 67돐을 성대히 경축

수만명은 민족사에 중추부를 찍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수십성상, 그 기나긴 행로 위에 세기적인 기적과 거창한 변혁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뜻깊게 경축하였다.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일을 전후로 하여 각국 언론들의 선전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해졌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멸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비롯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영구선군정치연구회, 스위스조선위원회, 도이쉴란트연대,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어 조선선과의 친선협회 볼스까지지가 인더네트홈페이지에 올렸다. 캄보디아신문 《프롬소스까야 프라우다》, 라오스신문 《빠싸손》,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트》, 세네갈신문 《라 보우페르》, 폴스까인터네트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여러 나라의 신문, 인터넷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래양상과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투쟁하였다. 캄보디아의 암짜라 TV 및 라디오방송, 수리아중앙TV방송, 만마TV방송, 방글라데시 에이리엔TV방송은 조선인민군의 불멸의 위력과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강국가건설, 조선의 명승지들을 소개하는 편지물들,

우리 나라 영화들을 방영하면서 특 별보도를 하였다. 언론들은 사회주의조선의 필승불패성을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불멸의 지도사상을 가지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를 생활로, 생명으로 간주하고있는데 있다고 칭하고 대를 이어 길이 빛날 아버지수령님의 건국업적을 찬양하였다. 만마면맹면대성발전당 양근지역위원회 비서, 수리아 디마스중합대학 정치학부 강사, 조선인민과의 반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은 담화 또는 글을,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 자유투표투명을 위한 베루니독립운동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배위원회, 영국선군정치연구회와 영국주제사상연구소, 영국조선 친선협회는 공동성명을, 조선과의 친선협회 제스프지부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담화와 글, 성명들은 9월 9일에 즈음하여 전제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어 처음으로 인민에게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선물을 마련해주신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들이 빈민년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하늘이 낸 해방의 은인이시며 민족의 영웅, 자애로운 인민의 어머니이시라고 칭송하고 보 다 위창찬한 사회주의조선의 매일을 명승지들을 소개하는 편지물들,

9.9절을 축하하여 꾸마국가리사 회 위원장, 캄보자국왕, 알제리대통령과 여러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 기관들,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제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보내오거나 대표부들을 축하방문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 단결기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래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거행되고 로씨야 마셜 고리키명칭 연 해변강국립도서관에서 우리 나라 도 서기중식이 마련된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이 세계 이르는 곳곳에서 널리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공화국의 창건과 강 화발전을 위하여 헌성토록 헌신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수령님들의 위업을 이어 강성조선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헌신과 애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주제사상연구소 로모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조선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혁명적 리더십의 빛나는 결실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김일성각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각하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있다. 조선식사회주의건설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새겨져있다. 세네갈사회당 비서는 조선이 위대한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의 명도를 받기때문이며 조선이 강대한것은

수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 되어있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앙골라 말란제주, 룬다 노르메주 보건국장들은 통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에 단호히 맞서나가 는 조선의 현실은 자주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 인민들에게 심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인민회의총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면합세력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도 조선만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는 한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사회주의를 좌절시키지 못할것이다. 캄보자 왕국당장 부수상은 김정은원수각하의 명도따라 조선인민은 경제건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언급하였다. 제반 사실은 걸출한 수령의 명도 밑에 이뤄진 약소국으로부터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힘차게 비약하여온 우리 공화국의 67년사가 곧 자랑찬 승리와 위대한 번혁의 역사임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 더욱더 무궁번영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길이 빛나라,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70년이며

## 당창건사적관과 당창건기념탑에서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업적을 새기며

한없이 숭엄한 격조와 성스러운 시명감에 젖어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나뭇잎아래 시대적변천을 이룩한 사랑하는 조국강토를 한가슴에 안아 본다.

위대한 로동당이 혁명의 기관차가 되어 인민의 운명을 영광으로 이끌고 오고 조국의 존엄을 최상의 높이로 높여준 70년!

푸르네 이 하늘아래 그 어디에서라도 좋을 것이다. 이 땅의 어느 평범한 인간도, 가을바람에 설레이는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꽃마저도 우리 당

의 위대함을 말해주고있기에.

그러나 우리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하얀색 벽사의 지점들중에서도 당창건사적관과 당창건기념탑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웅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입니다.》**

조선로동당의 70년사를 우리는 열광의 환호로만 칭송하려는 것이

아니며 금문자 아로세진 부피두루운 책으로 말하려 하지 않는다. 당창건의 역사적인 사연들을 소중한 간직하고있는 해방산기슭의 크지 않은 집에서 그리고 주체혁명의 혁명적당건설 업적을 상징하는 기념비적건축물인 당창건기념탑에서 우리 당의 70년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한다.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보여 주는 지점은 영원한 젊음의 무수한 봉우리들만큼 깊고있으나 바로 여기에 장구한 당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기관지인 《정로》의 창간을 두고 너무도 기쁘시어 자, 우리 당보도 보시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준비해온 당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번이 우리 당의 70년째 창간일입니다. 우리의 당창건기념탑에서 우리 당의 70년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한다.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보여 주는 지점은 영원한 젊음의 무수한 봉우리들만큼 깊고있으나 바로 여기에 장구한 당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기때문이다.

회의실까지 돌아보고 계단을 내려 내려는 생각은 길어진다.

별로 높지 않은 계단, 새여보니 28개밖에 되지 않는 이곳으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고 가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어머니당으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해의 첫날에도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당일꾼들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부우자가 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잊고있지 않았던가? 당창건기념탑 기단바닥의 중심에 서서, 붉은색돌과 해설의 흰색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품, 고마운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력사적 순간들이었다.

회견실의 전조가들에서 병사들과 함께 걸으며 혁명적진주에의 력사를 빛내여가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리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가시는것이 우리 당의 영광입니다...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대하는 조선로동당의 관점과 립장이 과연 어떤 숭고한 경지에 이르렀는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뜨겁게 담겨져있다.

역수로 쏟아지는 비방을에 못지않게 이 찾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건 설장소를 찾으신 사연이, 불어치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가리우시며 건속의 노력을 가르쳐주시던 순간이, 아슬한 공중삭도에 제일먼저 오르신지 그 안전을 확인하시던 추운 겨울날이 지금도 심장에 또렷하게 파고있다.

얼마전 라신시의 피해복구전투를 모순 지도하시던 형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 해방산기슭의 크지 않은 집으로부터

그토록 영평스러운 력사만을 안고 있는 조선로동당이 탄생한 당창건사적관은 너무도 수수하고 소박하다.

해방산은 원래 상서로운 기운이 항상 서려있다고 하여 옛날부터 서기산으로 불리워왔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산기슭에서 조선을 이끄신 때로부터 향간에 서는 서기산을 차츰 해방산이라고 불렀다.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가 자리잡고있던 포족지봉의 정상도, 아버이수령님께서 계시던 2층의 벽돌집도 그대로 모습 그대로이다.

혹시 저 나무가 아닌지, 우리 수령님께서 당창건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던 한방울 지새우시던 잊지 못할 순간들을 년월이 아로 새기고있는 나무가.

꽃가 저 바위는 아닌지, 루평의 진로를 찾아 힘로써 헤쳐온 혁명가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수령님 앉으셨던 바위가.

사적지의 나무 한그루, 조각물 하나, 사적물 하나에서도 아버이수령님의 체취와 숨결이 느껴지는것처럼 쉬이 곁을 옮길수 없다.

수령님께서 회고하신 《머리머리》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 방에서 있는 사실이다.

그편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량촌주, 강상호, 김익현동지들의 결혼상도 차려주시고 몸소 사랑의 축배잔까지 부어주시던 추억도 고이 간직하고있는 방이다. 그 나날의 기쁨이 느껴지는듯, 축하의 박소리가 들려오는듯 웃음을 짓기 싫어하며 방안을 둘러보는 우리의 가슴도 후련이온다.

아버이수령님의 인민적품도를 보여주는 하얀색 사연들이 매 방마다에 가득가득 넘쳐있었다.

김일성백두산부대 정치위원이라고 하시며 각계중 인사를 물론 배장병을 걸치고 온 사람들의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던 이야기, 온돌방의 나무시냇에 마주앉으시어 대안들과 똑같이 잠곡함을 드신 이야기, 우리 수령님을 모시던 첫 운전사가 되셨는지 기억하시는지 그날이 지났지만 김일성장군님임을 알게 되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

지도사상으로 하고 함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혁명적당건설의 관행이었다.

2층으로 된 당창건사적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적관인 2개의 침구실과 응접실, 회의실이 있으며 당창건사적관을 보여주는 7개의 호실이 있다.

이 침구실들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정책들을 실시하시였으며 당파와 투쟁의 주장이 다른 수많은 인사들, 각계각층의 인민들과 담화하시며 새 조국건설을 명도하시었다.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인사문과 보고문, 민주개혁의 범람조인들, 북조선로동당창건대회 보고문, 헌법초안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수많은 고전적작품들이 여기서 집필되었다.

지금도 바라보노라면 우리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시절의 첫 통치시였던 강유범을 비롯한 교원들을 이방에서 만나주시고 지역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육성하여 나라를 통하게 한 다는 뜻에서 학교의 이름을 《삼흥중학교》라고 지어주시며 특색유예로 적는 사적인 아니라 인간 김일성으로 《석삼》자와 《홍학홍》자를 활달하게 써주시던 력사적순간이 이러하다.

우리 당의 기관지인 《정로》의 창간을 두고 너무도 기쁘시어 자, 우리 당보도 보시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준비해온 당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번이 우리 당의 70년째 창간일입니다. 우리의 당창건기념탑에서 우리 당의 70년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한다.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보여 주는 지점은 영원한 젊음의 무수한 봉우리들만큼 깊고있으나 바로 여기에 장구한 당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기때문이다.

회의실까지 돌아보고 계단을 내려 내려는 생각은 길어진다.

별로 높지 않은 계단, 새여보니 28개밖에 되지 않는 이곳으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고 가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어머니당으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해의 첫날에도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당일꾼들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부우자가 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잊고있지 않았던가? 당창건기념탑 기단바닥의 중심에 서서, 붉은색돌과 해설의 흰색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품, 고마운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력사적 순간들이었다.

회견실의 전조가들에서 병사들과 함께 걸으며 혁명적진주에의 력사를 빛내여가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리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가시는것이 우리 당의 영광입니다...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대하는 조선로동당의 관점과 립장이 과연 어떤 숭고한 경지에 이르렀는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뜨겁게 담겨져있다.

역수로 쏟아지는 비방을에 못지않게 이 찾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건 설장소를 찾으신 사연이, 불어치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가리우시며 건속의 노력을 가르쳐주시던 순간이, 아슬한 공중삭도에 제일먼저 오르신지 그 안전을 확인하시던 추운 겨울날이 지금도 심장에 또렷하게 파고있다.

얼마전 라신시의 피해복구전투를 모순 지도하시던 형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사적지의 나무 한그루, 조각물 하나, 사적물 하나에서도 아버이수령님의 체취와 숨결이 느껴지는것처럼 쉬이 곁을 옮길수 없다.

10대의 시절에 펼쳐 《E. D.》의 걸성으로 우리 당의 력사기록을 마련하시고 함일의 피어린 나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2층집을 돌아보노라면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의 글줄이 어둡다.

《우리 투사들은 백두산에서 맺은 신들뜸을 풀 사이도 없이 새 전진로 속속 떠나갑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네가 차지할 파견지를 하나의 작전지역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건설은 개신이라기보다 혁명의 새 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적일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항일대전의 초연년 배당을 벗어 놓고 이념들만남 기쁨 어찌할 줄 모르는 투사들, 백두의 불꽃으로 군복도 갈아입지 못한 그들을 또다시 새로운 투쟁전진로 떠나보낸 결심을 내리시는데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차려놓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루빨리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라는 새 나라를 일떠세우시라는 굳센 의지였다.

지금도 현관문을 드르며 서서고 입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투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아버이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는듯.

누비웃거리가 찢려있는 방은 투사들이 생활하던 방이었다. 파견지에서 돌아온 항일투사들이 모여 서로 회포도 나누던 한이 밤이아말로 제2의 빨치산생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자주 여기서 투사들과 함께 쉬시었는데

우리 당의 기관지인 《정로》의 창간을 두고 너무도 기쁘시어 자, 우리 당보도 보시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준비해온 당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번이 우리 당의 70년째 창간일입니다. 우리의 당창건기념탑에서 우리 당의 70년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한다.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보여 주는 지점은 영원한 젊음의 무수한 봉우리들만큼 깊고있으나 바로 여기에 장구한 당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기때문이다.

회의실까지 돌아보고 계단을 내려 내려는 생각은 길어진다.

별로 높지 않은 계단, 새여보니 28개밖에 되지 않는 이곳으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고 가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어머니당으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해의 첫날에도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당일꾼들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부우자가 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잊고있지 않았던가? 당창건기념탑 기단바닥의 중심에 서서, 붉은색돌과 해설의 흰색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품, 고마운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력사적 순간들이었다.

회견실의 전조가들에서 병사들과 함께 걸으며 혁명적진주에의 력사를 빛내여가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리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가시는것이 우리 당의 영광입니다...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대하는 조선로동당의 관점과 립장이 과연 어떤 숭고한 경지에 이르렀는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뜨겁게 담겨져있다.

역수로 쏟아지는 비방을에 못지않게 이 찾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건 설장소를 찾으신 사연이, 불어치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가리우시며 건속의 노력을 가르쳐주시던 순간이, 아슬한 공중삭도에 제일먼저 오르신지 그 안전을 확인하시던 추운 겨울날이 지금도 심장에 또렷하게 파고있다.

얼마전 라신시의 피해복구전투를 모순 지도하시던 형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세계에는 유명무명의 수많은 기념탑들이 있어도 그 위치를 잡아주실수 없는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사적관인 2개의 침구실과 응접실, 회의실이 있으며 당창건사적관을 보여주는 7개의 호실이 있다.

이 침구실들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정책들을 실시하시였으며 당파와 투쟁의 주장이 다른 수많은 인사들, 각계각층의 인민들과 담화하시며 새 조국건설을 명도하시었다.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인사문과 보고문, 민주개혁의 범람조인들, 북조선로동당창건대회 보고문, 헌법초안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수많은 고전적작품들이 여기서 집필되었다.

지금도 바라보노라면 우리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시절의 첫 통치시였던 강유범을 비롯한 교원들을 이방에서 만나주시고 지역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육성하여 나라를 통하게 한 다는 뜻에서 학교의 이름을 《삼흥중학교》라고 지어주시며 특색유예로 적는 사적인 아니라 인간 김일성으로 《석삼》자와 《홍학홍》자를 활달하게 써주시던 력사적순간이 이러하다.

우리 당의 기관지인 《정로》의 창간을 두고 너무도 기쁘시어 자, 우리 당보도 보시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준비해온 당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번이 우리 당의 70년째 창간일입니다. 우리의 당창건기념탑에서 우리 당의 70년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한다.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보여 주는 지점은 영원한 젊음의 무수한 봉우리들만큼 깊고있으나 바로 여기에 장구한 당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기때문이다.

회의실까지 돌아보고 계단을 내려 내려는 생각은 길어진다.

별로 높지 않은 계단, 새여보니 28개밖에 되지 않는 이곳으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고 가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어머니당으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해의 첫날에도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당일꾼들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부우자가 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잊고있지 않았던가? 당창건기념탑 기단바닥의 중심에 서서, 붉은색돌과 해설의 흰색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품, 고마운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력사적 순간들이었다.

회견실의 전조가들에서 병사들과 함께 걸으며 혁명적진주에의 력사를 빛내여가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리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가시는것이 우리 당의 영광입니다...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대하는 조선로동당의 관점과 립장이 과연 어떤 숭고한 경지에 이르렀는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뜨겁게 담겨져있다.

역수로 쏟아지는 비방을에 못지않게 이 찾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건 설장소를 찾으신 사연이, 불어치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가리우시며 건속의 노력을 가르쳐주시던 순간이, 아슬한 공중삭도에 제일먼저 오르신지 그 안전을 확인하시던 추운 겨울날이 지금도 심장에 또렷하게 파고있다.

얼마전 라신시의 피해복구전투를 모순 지도하시던 형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자주 여기서 투사들과 함께 쉬시었는데

세게에는 유명무명의 수많은 기념탑들이 있어도 그 위치를 잡아주실수 없는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사적관인 2개의 침구실과 응접실, 회의실이 있으며 당창건사적관을 보여주는 7개의 호실이 있다.

이 침구실들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정책들을 실시하시였으며 당파와 투쟁의 주장이 다른 수많은 인사들, 각계각층의 인민들과 담화하시며 새 조국건설을 명도하시었다.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인사문과 보고문, 민주개혁의 범람조인들, 북조선로동당창건대회 보고문, 헌법초안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수많은 고전적작품들이 여기서 집필되었다.

지금도 바라보노라면 우리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시절의 첫 통치시였던 강유범을 비롯한 교원들을 이방에서 만나주시고 지역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육성하여 나라를 통하게 한 다는 뜻에서 학교의 이름을 《삼흥중학교》라고 지어주시며 특색유예로 적는 사적인 아니라 인간 김일성으로 《석삼》자와 《홍학홍》자를 활달하게 써주시던 력사적순간이 이러하다.

우리 당의 기관지인 《정로》의 창간을 두고 너무도 기쁘시어 자, 우리 당보도 보시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준비해온 당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번이 우리 당의 70년째 창간일입니다. 우리의 당창건기념탑에서 우리 당의 70년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한다.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보여 주는 지점은 영원한 젊음의 무수한 봉우리들만큼 깊고있으나 바로 여기에 장구한 당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기때문이다.

회의실까지 돌아보고 계단을 내려 내려는 생각은 길어진다.

별로 높지 않은 계단, 새여보니 28개밖에 되지 않는 이곳으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고 가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어머니당으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해의 첫날에도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당일꾼들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부우자가 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잊고있지 않았던가? 당창건기념탑 기단바닥의 중심에 서서, 붉은색돌과 해설의 흰색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품, 고마운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력사적 순간들이었다.

회견실의 전조가들에서 병사들과 함께 걸으며 혁명적진주에의 력사를 빛내여가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리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가시는것이 우리 당의 영광입니다...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대하는 조선로동당의 관점과 립장이 과연 어떤 숭고한 경지에 이르렀는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뜨겁게 담겨져있다.

역수로 쏟아지는 비방을에 못지않게 이 찾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건 설장소를 찾으신 사연이, 불어치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가리우시며 건속의 노력을 가르쳐주시던 순간이, 아슬한 공중삭도에 제일먼저 오르신지 그 안전을 확인하시던 추운 겨울날이 지금도 심장에 또렷하게 파고있다.

얼마전 라신시의 피해복구전투를 모순 지도하시던 형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 마치와 낮과 붓대가 빛나는 하늘아래서

우리 당의 기관지인 《정로》의 창간을 두고 너무도 기쁘시어 자, 우리 당보도 보시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준비해온 당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번이 우리 당의 70년째 창간일입니다. 우리의 당창건기념탑에서 우리 당의 70년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한다.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보여 주는 지점은 영원한 젊음의 무수한 봉우리들만큼 깊고있으나 바로 여기에 장구한 당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기때문이다.

회의실까지 돌아보고 계단을 내려 내려는 생각은 길어진다.

별로 높지 않은 계단, 새여보니 28개밖에 되지 않는 이곳으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고 가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어머니당으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해의 첫날에도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당일꾼들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부우자가 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잊고있지 않았던가? 당창건기념탑 기단바닥의 중심에 서서, 붉은색돌과 해설의 흰색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품, 고마운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력사적 순간들이었다.

회견실의 전조가들에서 병사들과 함께 걸으며 혁명적진주에의 력사를 빛내여가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리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가시는것이 우리 당의 영광입니다...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대하는 조선로동당의 관점과 립장이 과연 어떤 숭고한 경지에 이르렀는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뜨겁게 담겨져있다.

역수로 쏟아지는 비방을에 못지않게 이 찾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건 설장소를 찾으신 사연이, 불어치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가리우시며 건속의 노력을 가르쳐주시던 순간이, 아슬한 공중삭도에 제일먼저 오르신지 그 안전을 확인하시던 추운 겨울날이 지금도 심장에 또렷하게 파고있다.

얼마전 라신시의 피해복구전투를 모순 지도하시던 형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마치와 낮과 붓대가 빛나는 하늘아래서

우리 당의 기관지인 《정로》의 창간을 두고 너무도 기쁘시어 자, 우리 당보도 보시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준비해온 당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번이 우리 당의 70년째 창간일입니다. 우리의 당창건기념탑에서 우리 당의 70년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한다.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보여 주는 지점은 영원한 젊음의 무수한 봉우리들만큼 깊고있으나 바로 여기에 장구한 당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기때문이다.

회의실까지 돌아보고 계단을 내려 내려는 생각은 길어진다.

별로 높지 않은 계단, 새여보니 28개밖에 되지 않는 이곳으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고 가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어머니당으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해의 첫날에도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당일꾼들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부우자가 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잊고있지 않았던가? 당창건기념탑 기단바닥의 중심에 서서, 붉은색돌과 해설의 흰색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품, 고마운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력사적 순간들이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 동지와 함께 중국의 당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배 이 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승 근 평 동 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 극 강 동 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 덕 강 동 지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과 귀국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 정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 봉 주

주제104(2015)년 9월 30일 평 양

##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풍치 좋은 바다에서도

수십년전 6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진 현지지도의 길에 서 일꾼들과 함께 어느 한 바다가에 잠시 머무르게 되시었다.

푸른 물 색깔이 수평선 저 멀리로 휘둥둥이 퍼져오르고 고기배들이 떠있는 바다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길은 생각에 잠겨 바다가의 경관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우리 당건설의 총적임무이고 최우선과제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란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우리 당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주제 93(2004)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 부대의 양보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봄바람에 야전복자락을 날리며 양보장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자주 훌륭하다고, 양보장을 잘 꾸리고

나뭇잎기를 잘한다는 말은 이미 들었는데 실지 와보니 그런 소문이 날만도 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지난 기간 해마다 수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주변의 야산들을

주제 83(1994)년 10월 5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50돌을 맞은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칭송하는 기념비를 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83(1994)년 7월 7일 어머니의 기념탑형성시인들을 지도하시었다.

그런데 어머니 수령님께서 7월 8일 아버지수령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 곁을 떠나실줄을, 아버이수령님께서 당창건기념탑의 형상시안도, 완공된 기념탑도 보여드리지 못하게 되시었다 그때 우리 장군님의 심정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기는 듯 하였다.

하지만 온 나라가 민족회대의 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의 바다에 잠겨있던 때 아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어 오시게 되신데 대하여 기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자주 여기서 투사들과 함께 쉬시었는데

우리 당의 기관지인 《정로》의 창간을 두고 너무도 기쁘시어 자, 우리 당보도 보시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준비해온 당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번이 우리 당의 70년째 창간일입니다. 우리의 당창건기념탑에서 우리 당의 70년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한다.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보여 주는 지점은 영원한 젊음의 무수한 봉우리들만큼 깊고있으나 바로 여기에 장구한 당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기때문이다.

회의실까지 돌아보고 계단을 내려 내려는 생각은 길어진다.

별로 높지 않은 계단, 새여보니 28개밖에 되지 않는 이곳으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고 가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어머니당으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해의 첫날에도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당일꾼들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부우자가 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잊고있지 않았던가? 당창건기념탑 기단바닥의 중심에 서서, 붉은색돌과 해설의 흰색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품, 고마운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력사적 순간들이었다.

##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풍치 좋은 바다에서도

수십년전 6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진 현지지도의 길에 서 일꾼들과 함께 어느 한 바다가에 잠시 머무르게 되시었다.

푸른 물 색깔이 수평선 저 멀리로 휘둥둥이 퍼져오르고 고기배들이 떠있는 바다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길은 생각에 잠겨 바다가의 경관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우리 당건설의 총적임무이고 최우선과제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란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우리 당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주제 93(2004)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 부대의 양보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봄바람에 야전복자락을 날리며 양보장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자주 훌륭하다고, 양보장을 잘 꾸리고

나뭇잎기를 잘한다는 말은 이미 들었는데 실지 와보니 그런 소문이 날만도 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지난 기간 해마다 수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주변의 야산들을

우리 당의 기관지인 《정로》의 창간을 두고 너무도 기쁘시어 자, 우리 당보도 보시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준비해온 당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번이 우리 당의 70년째 창간일입니다. 우리의 당창건기념탑에서 우리 당의 70년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한다.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보여 주는 지점은 영원한 젊음의 무수한 봉우리들만큼 깊고있으나 바로 여기에 장구한 당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기때문이다.

회의실까지 돌아보고 계단을 내려 내려는 생각은 길어진다.

별로 높지 않은 계단, 새여보니 28개밖에 되지 않는 이곳으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고 가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아버이수령님을 뵈려고 올랐는가, 고령의 김구가 목숨마냥 간수해오던 상해형사정부의 인장을 정리받으려고 오셨던지.

어머니당으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해의 첫날에도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당일꾼들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부우자가 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잊고있지 않았던가? 당창건기념탑 기단바닥의 중심에 서서, 붉은색돌과 해설의 흰색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품, 고마운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력



# 우리 세월 좋아, 로동당이 좋아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로세대들

##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 혁명선배, 그 부름과 함께

크나큰 환희로 울음을 10월의 명절을 눈앞에 두고 맞이한 국제로인의 날이다. 이날을 맞이하여 이 땅 어디서나 로동당의 은덕을 노래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느라 저도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근로자, 이 세상 어느 나라에나 그 부름은 있다. 하디면 자본주의 나라에서 좌절과 불행, 천대와 멸시의 대명사로 한숨속에 불러주고있는 근로자라는 그 부름이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는 어떻게 불러주는가.

**혁명선배!**  
불러볼수록 가슴이 뭉클해진다. 사랑과 의리가 차넘치는 이 땅에서 행복과 존경의 대명사로 자랑스러운 부름!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주고 있으며 로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것이 진정한 인본주의로 되고있다.

근로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가 계획적으로 늘어나 로인들의 생활조건과 환경이 날을 따라 좋아지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공로로운 근로자들이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떠받들려주며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선배에 대한 태도를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을 진두 지휘하고조시기의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을 비롯하여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혁명의 각이한 년

대의 공로자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었다. 진정 대를 이어 뜨거워만지는 절세위인들의 한평생의 사랑과 은정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여생을 보내고 청춘시절의 기백과 열정에 넘쳐 《세월이여 가보라지》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근로자들은 얼마나 행복한것인가.

따뜻한 보금자리마다에서 뜨거운 격정속에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 세월 좋아, 로동당이 좋아라고 리치는 하얗은 이야기중에서 오늘 우리는 그들의 복된 삶을 전하지 않는다. 한것은 날에 날마다 더해지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애국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가는 그들의 힘찬 발걸음이 이 땅에 꽃없이 새겨져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충실하여온 혁명선배들을 존경하는것은 후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어떻게 받들것인가?  
이것이 보답의 길을 걷는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한 근로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름은 리영택, 대동강구역 문수1동에 살고있는 그는 한성근본을 입고 당의 선군명도를 받들여온 제대군관이다. 그의 가슴속에는 항상 군사복무의 나날 군인들의 건강증진과 식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는 좋은 일을 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 감사를 드렸던 큰 뜻을 추억이 스조흔 간직되어있다. 그 추억을 안고 그는 일흔이

넘은 지금도 나라를 위한 일감을 스스로 찾아내고 국민의 본분을 다해가고있다. 문수1동의 배구장과 공원, 놀이터들에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스며있다.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자식들과 함께 많은 자재들도 마련하고 제 집안 일처럼 앞장서서 혁명적근로정신을 발휘하곤 하는 리영택로인. 이뿐이 아니다. 그가 9년전부터 통의 여러곳에 정성껏 심은 버드나무며 느티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비롯하여 수백그루가 넘는 여러 수종의 나무들도 키물이 자라 푸르다 실해고있다. 언젠가 가을철이 올 때 동일 군들이 전무장으로 떠나던 때에도 그는 농뿔모를 쓰고 일러나가는 그들을 따라나섰다. 일꾼들이 년로한 몸에도 이만한은 따라서서 말아달라며 그를 막아나섰다. 그때 리영택로인은 웃으며 말하였다.

《나무내켜 따르신 걸음이나 함께 갑시다.》

그날 리영택로인은 젊은이들 못지 않게 버단을 지나서며 일손을 다그쳤다. 줄줄이 흐르는 땀도 훗날 사이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위험어렵 하라고도 말하였다.

침침하게 그는 빙 둘러앉은 사람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제인가 리영택로인은 가까운 곳에 살고있는 박명식정도로 병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니 대어잇살을 빼보이는 충각이 빠르르 달려나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선동준비를 하고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 리영택로인은 술

은 몰이지만 나라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면 내 힘자라는것 하고싶은 심정이요라고. 이것은 비단 리영택로인의 생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당과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찾아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이 땅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관리사업을 스스로 맡아 번함없는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창성군 읍민들의 전쟁로병들이며 년로한 몸으로 한두해도 아니고 20년을 갓을 맺지만, 마른날 가림없이 나무를 애지중지하고 가꾸어온 덕성군 주봉리의 《나무아바이》, 당의 사랑과 은정에 조그마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스스로 부모뉘은 아이들을 데려다키는 대동강구역 창류1동 전쟁로병 리광호로인, 아직도 리발을 가꾸고 집집승을 길러 해마다 인근군군인들에게 보내주는 김형현로인의 근로자부부...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혁명선배들이다. 애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바쳤고 오늘날은 후대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마음을 심어주어 생활의 거울로, 본보기로 서는 근로자들, 그들의 애국의 마음에는 정녕 로되한 일흔이후의 젊음이 있다. 내 생애 다할 때까지 조국을 위하여!

이것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하기에 인민은 그들을 존경하고 자랑한다. 혁명선배, 값높은 그 부름과 함께!  
본사기자 오 은 별

《정말이지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마치 꿈을 꾸는것 같습디다.》  
이것은 우리 당의 은정속에 새로 건설된 평양양로원에 보금자리를 옮긴 보양생들이 저저마다 리치는 진실의 목소리이다. 애저 그렇지 않으랴.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민족의 향취를 풍기는 학각지봉의 조선식민족문화로 특색있는 조안년 평양양로원의 건물은 얼마나 멋들어지고 환물한가.

마음이 들썩하게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린다. ...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년이니 세월이여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늘음소니 ...

일요일이나 명절날이면 이렇게 흥겨운 노래가락에 맞추어 몇몇이건 흥판을 치며 즐기는 평양양로원 보양생들의 얼굴마다에는 희열과 향미가 한껏 넘쳐 흐른다.

**기쁨속에 노래속에**  
자기들을 혁명선배로, 옷사람으로 내세워주는 어머니 당에 대한 고마움이 스조흔 비끼어있다. 한바탕 춤을 추고난 리영실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인생의 로년기에도 값 높은 삶을 빛내여주는 고마운 꿈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힘껏 보답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정말이지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마치 꿈을 꾸는것 같습디다.》  
이것은 우리 당의 은정속에 새로 건설된 평양양로원에 보금자리를 옮긴 보양생들이 저저마다 리치는 진실의 목소리이다. 애저 그렇지 않으랴.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민족의 향취를 풍기는 학각지봉의 조선식민족문화로 특색있는 조안년 평양양로원의 건물은 얼마나 멋들어지고 환물한가.

《정말이지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마치 꿈을 꾸는것 같습디다.》  
이것은 우리 당의 은정속에 새로 건설된 평양양로원에 보금자리를 옮긴 보양생들이 저저마다 리치는 진실의 목소리이다. 애저 그렇지 않으랴.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민족의 향취를 풍기는 학각지봉의 조선식민족문화로 특색있는 조안년 평양양로원의 건물은 얼마나 멋들어지고 환물한가.

**되 찾은 청춘**  
강원도양로원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을 맞으며 다채로운 유희 및 체육경기가 진행되어 만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장기와 윗놀이 등 여러 종목들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중에서 치열하게 치열하게 진행되는 배구 경기였다. 운운복을 차려입고 용원자들의 열띤 용원에 화답하

도 여러 보건기관 의료인들,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안고 달려온 평양양로원, 선교편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에 떠날라 이 곳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정이 넘쳐흐른다. 하기에 이곳의 보양생들은 흐르는 세월속에 몸도 마음도 한결 젊어진다며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말한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따뜻한 정 넘치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정말 좋은 세월을 만나 요즘에는 힘과 열정이 북받쳐 마치 청춘을 되찾은것만 같습니다.》  
애저 그렇지 않으랴. 근로자들을 혁명선배로 따르이 존대해주는 고상한 도덕이 품어 넘쳐흐르는 어머니 당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육체적으로도 마음의 로쇠는 있을수가 없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정말 좋은 세월을 만나 요즘에는 힘과 열정이 북받쳐 마치 청춘을 되찾은것만 같습니다.》  
애저 그렇지 않으랴. 근로자들을 혁명선배로 따르이 존대해주는 고상한 도덕이 품어 넘쳐흐르는 어머니 당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육체적으로도 마음의 로쇠는 있을수가 없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 건 일**

### 배구장에 넘치는 환희

얼마전 대성구역공원 판리소 봉용2공원을 지나던 우리는 때때로 울림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바라보니 공원의 배구장에선 배구경기가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구장주변에 가득 모여 선 모습도 그려왔지만 머리에 흰머리가 내린 배구선수들의 모습은 매우 광만하였다. 알고보니 그들은 대성구역 봉용1동과 봉용2동에서 사는 근로자들이었다. 더욱 놀라운것은 평범한 선수들의 대다수는 70살을 가까이한 년로자들이었는데 아직도 경기장안에서는 젊음을 자랑하고있었다. 선수들의 처녀기와 받기동작도 좋지만 특징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세를 올리는 평범한 선수들은 모두가 열기에 넘쳐있었다. 《저희 봉용2동의 년로자들이 1대 0으로 이긴 가운데 2회전을 진행하였습디다. 풍파로운 승부를 보니 모두가 젊은이

들 못지 않습니다.》  
결에 있던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의 말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국제로인의 날을 맞이해 전국각지에서 참관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평양시에서는 구역별로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도 진행되고있고, 장구나 윗놀이경기도 그려왔지만 배구경기가 제일 볼만 하다는 것이었다. 지금 진행되는 배구경기는 준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년로자들의 배구경기 -만경대구역공원판리소 팔공공원에서- 본사기자 찍음

승에 올라가기 위한 대성구역안의 동들사이의 경기인데 결승을 가까이할수록 더욱 치열해진다는데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배구장에선 이는 또다시 특징하는 순간 《와-》하는 기쁨에 넘친 환성이 터져나왔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는 로인들의 배구경기는 보느라니 로동당의 은덕으로 인생의 황혼기에도 보람있는 삶을 누려가는

년로자들의 행복한 생활이 가슴 뜨겁게 느껴졌다. 어디서나 넘쳐나는 로인들의 활기와 향만,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 그것은 그대로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울려 퍼지는 《세월이여 가보라지》의 노래소리와 우리 당을 받드는 한결에서 영원한 청춘으로 살려는 년로자들의 심정의 목소리였다. **본사기자 홍 성 철**

# 청춘과원에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

##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고산파수종합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부릉도원으로 꾸려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하안 뜻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웅대한 대규포와 일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열정에 불타고있는 청년학생들이 모여들어 고산파수종합농장건설에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원들을 물심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지난 10여년간 618건설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성의껏 해온 송해애국주의 정신을 위해 남겨두고 고산파수 종합농장을 건설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것이 간직되어있는지 다는 몰랐다. 하지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돌격대원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위해주는 그의 변함없는 모습에, 나날이 뜨거워만 가는 그의 진정애에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였으며 돌격대원들은 그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었다.

진정 그의 마음속에 간직된것은 고산파에 들리시어 인민을 위한 행복의 확신을 펼쳐주시려한 큰 로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었고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관철하는 길에 한몸 아낌없이 바치려는 순결하고도 뜨거운 도덕의리심이였다. **최진연초소의 옛 병사**

경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아패단위 일군인 박덕삼동무도 있었다. 순결한 마음으로 송하안 공민적자격을 안고 우리 당의 웅대한 부강조국건설시상을 실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속에 있는 보봉구역 시장동 39인민반에서 사는 정옥실동무의 가정도 있다. 우리 당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새겨들은 정옥실동무는 지난 기간 금수산애국공원을 주축의 최고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충정을 다하였으매 백두산지구 혁명적지, 혁명사적지건설과 최전발전건설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그는 구역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깨끗한 마음을 바쳐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며 자식들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후에도 정옥실동무는 중요대선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성심성의로 진행하였다. **청춘과원에 전편된 고산파**

### 로병들이 정답게 찾는 우리 딸들

#### 신의주시 개혁동 녀맹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병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는 기쁨이 온 나라에 차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을 뜻깊게 맞던 지난 7월 신의주시 개혁동 전쟁로병들의 집들은 어느때없이 흥성하였다. 《로병동지, 전수절을 축하합니다!》

《로병아버님이 전하하시길 바랍니다.》

지나 몇해동안 개혁동 녀맹원들이 동에서 사는 전쟁로병들을 위해 바치는 진정은 뜨거운 열육의 정교대였다. 평민동무들 비롯한 동녀맹원들은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끝없이 애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하안 뜻을 녀맹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면서 모든 녀맹원들이 자기 몸을 전쟁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며 인센트를 담당 수형,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 그들의 투쟁

### 친혈육의 정을 안고 바치는 지성

황해북도의 일군들이 도안의 인민들의 혈육의 뜨거운 정이 담긴 수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배두산영웅청년돌격대 황해북도지원 돌격대원들을 도사시 찾아왔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환경을 앞둔 배두산영웅청년돌격대건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도안의 시, 군

친혈육의 정을 다하여 건강과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어 전쟁로병들과 주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여러가지 기념품들과 식료품, 부식물들을 안고 찾아와 노래도 불러주면서 전쟁로병들모두가 건강안 몸으로 딱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두루먼 마음을 세라, 추우면 추운세라 건강과 생활에 늘 관심을 두려는 개혁동 녀맹원들, 위대한 조국방위전과 거창한 사회주의건설대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후대들에게 훌륭한 사상정신적부류 넘겨주는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친혈육의 정을 다해 위해하는 그들은 개혁동의 전쟁로병들은 누구나 우리 딸이라고 부르며 자랑하고있다.

우리 딸, 전쟁로병들이 정을 담아, 사랑을 담아 부르는 그 부름에 선군시대 우리 녀성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도와 우리 사회에 풍기처럼 흘러넘치는 혁명선배들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고상한 정신도덕이 기쁨이 그대로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지 권**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고산파수종합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성심성의로 다하는 지원자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고산파수종합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성심성의로 다하는 지원자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고산파수종합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성심성의로 다하는 지원자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고산파수종합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성심성의로 다하는 지원자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고산파수종합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성심성의로 다하는 지원자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고산파수종합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성심성의로 다하는 지원자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고산파수종합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성심성의로 다하는 지원자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고산파수종합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성심성의로 다하는 지원자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